

연구윤리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

서문

연구의 가치와 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는 전적으로 연구의 진실성에 달려있다. 비록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국가나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연구 과정에서의 진실성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연구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원칙

- 모든 연구과정에서의 정직성
- 연구 수행에서의 책임성
- 공동연구에서의 상호 존중과 공정성
- 연구자로서 사회에 대한 의무의 준수

연구자의 책임

1. 진실성 : 연구자는 수행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규정의 준수 :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3. 연구방법 : 연구자는 적절한 방법론을 택하여 엄밀한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4. 연구 기록 :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증명하고 추후 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구과정에서의 모든 기록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
5. 연구 결과 : 연구자는 연구성과의 우선권과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후에는 즉시 데이터와 연구의 결론을 공개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6. 저작권 : 연구자는 모든 종류의 연구성과 출판과 제안, 보고, 연구결과 발표에 있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진다. 연구에 기여하여 저자로서의 권한이 있는 사람은 모두, 그리고 그들만이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7. 출판물에서의 감사 표시(acknowledgement) : 연구성과의 출판물에서는 기록자, 연구비 지원자, 후원자 등 연구에 필요한, 그러나 저작권에는 부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름과 역할을 기록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8. 동료 심사 : 동료 연구자의 업적을 평가할 때에는 공정·신속·엄정하여야 하고 평가 과정에서 인지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
9. 이해충돌 : 연구자는 연구제안, 출판, 전문가로서의 발언, 그리고 평가 활동에 있어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공지하여야 한다
10. 전문가로서의 발언 :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견해를 발언할 때에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 국한하여 발언하고 개인으로서의 견해와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발언하여야 한다
11. 부적절한 연구에 대한 보고 :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또는 연구수행에서의 부주의, 부당한 저자 표시, 상충하는 데이터의 누락, 왜곡된 방법을 통한 분석 등 부적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관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2. 부적절한 연구에 대한 대처 : 연구기관, 학술지, 전문가 단체, 연구비 지원기관 등 연구와 관련된 기관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을 처리하고 선의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연구기록의 정정을 포함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13. 연구 환경 : 연구기관은 교육과 내부 정책 및 규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4. 사회적 파장에 대한 고려 :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연구의 결과가 사회에 미칠 위험과 이익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윤리적 의무가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은 2010년 7월 21-24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연구윤리 컨퍼런스에서 책임있는 연구 수행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이 선언은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컨퍼런스에 참여한 국가나 단체의 공식 의견은 아니며 이 선언을 바탕으로 연구윤리에 관한 공식 정책이나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있는 국가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